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겹작)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본문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구절 및 단어의 의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
2. 글의 주된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필자의 의문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대해 묻는 문제

[지문 분석]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독자의 주의 환기)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의 일반적 개념)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 (1668~1715)이다. (독자의 흥미 유발)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자화상의 첫인상)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자화상의 첫인상)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자화상의 첫인상) ('자화상'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매서우면서도 기를 발산하는 듯 하며, 으스스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본문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글쓴이가 '자화상'을 보고 받은 첫 인상이 제시된 부분이니 꼼꼼히 읽어두어야 해!)(매년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은 역시 '내용 일치' 를 묻는 문제야!)

▶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武人)인가? (질문을 통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勇力)(썩썩한 힘. 또는 뛰어난 역량)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무도에 관한 재주)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추측 및 상념①)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冷嚴)한(태도나 행동이 냉정하고 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던지도 모른다.]([]: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추측 및 상념②)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추측 및 상념③)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원래의 의미는 '벗어나기 어려운 부정적 평가를 내려'이지만, 문맥상 '대상의 본질과 관계없이 특정한 평가를 내리고 그러할 것으로 여겨'를 의미함.)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想念)(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첫인상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필자는 첫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첫인상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기억하고, 글쓴이가 첫인상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기억해 두자!)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 전개 방식 : 인과)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첫인상에 부과되는 것)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상념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방식을 통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음.)('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는 '~하였다, ~이다'와 같이 마치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듯한 말투야! 그러면 아무래도 독자인 '나'에게 직접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필자가 혼자서 말하는 것을 독자가 옆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따라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문체로 글이 구성되면 필자와 독자가 더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일반적인 글보다 더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금년도에 이 글에서 사용된 주된 서술상의 특징으로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 와, '의문을 제시한 후 자료와 주론을 통해 의문을 해소함.' 이 많이 출제되었어!) 아무런 선입관(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나 편견(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특징)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특징)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정면상의 일반적인 특징)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자화상'이 정면상임에도 입체감을 갖는 이유①)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자화상'이 정면상임에도 입체감을 갖는 이유②)('자화상의 수염과 탕건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평면 위에 정면을 그려 놓은 '자화상'이 입체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간략히 말하면 '수염, 탕건'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수염'은 바깥으로 뻗으며 나서 표정을 떠오르게 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탕건'은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야!) 그런데 크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자화상'의 특징, 생략하지 않고 그런 곳은 사실에 가깝도록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나, 신체의 일부를 그리지 않고 생략한 것은 사실과 다름.)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동인 양(직유법)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목에 간혀 칼(죄인에게 씌우던 형틀. 두껍고 긴 널빤지의 한끝에 구멍을 뚫어 죄인의 목을 끼우고 비녀장을 질렀음.)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윤두서가 죄인으로서 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임.)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특징)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금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자화상'에 대한 첫 인상을 제시한 앞 문단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화상'을 다시 바라본 이 문단에 대해 인상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선지가 전년도에는 종종 출제되었어! 그러나 본문을 꼼꼼히 보면 '자화상'은 처음 봤을 때도, 다시 봤을 때도 무서움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썩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자화상'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는가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의문을 가진 이유)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윤두서의 집안 내력)(글에서 언급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윤두서 집안의 가계'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가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 자식, 자손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정확한 기록 없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함.) 공재(윤두서의 호)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남의 사정에 아랑곳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자화상'이 윤두서가 자신을 그린 것이 아닐 수 있음. 필자의 첫 번째 의문 : '자화상' 속 인물은 윤두서가 맞는가?)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또는 옆으로 길게)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열일곱 줄의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미완성, 필자의 두 번째 의문 : '자화상'이 혹시 미완성작이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되지도 않았다.]([]:일반적으로 그리기를 마친 완성작은 족자로 표구하여 보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작품이 가로로 열일곱 줄의 금으로 접힌 점과 여러 작품 뭉치 속에 섞여 있다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점 때문에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 작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러 작품 뭉치 속에 섞여 있다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점'은 글쓴이의 추측일 뿐, 실제로 '자화상'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굴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매년 이처럼 글의 내용과 맞는 듯하더라도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또는 사실을 추측인 것처럼 설명하는 선지가 출제되고 있으니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 '자화상'에 대한 의문점

이상의 의문점들(자화상' 속 인물은 윤두서가 맞는가? '자화상'이 혹시 미완성작이지는 않은가?)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의문점을 풀 수 있는 방법)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서화의 옆에 글제로 써넣는 시)[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언(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길이의 단위. 한 자는 약 30.3cm에 해당함)도 되지 않는 몸]([]: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윤두서의 모습①)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윤두서의 모습②)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윤두서의 모습③)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인물의 내면에 대한 내용)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이모저모로 살펴본 생김새)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찬문에 묘사된 윤두서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 의문 '자화상 속 인물은 누구인가?'가 해소됨.)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실지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찬문의 내용과 달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자화상'의 인상에 대한 의문)(필자가 '자화상'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필자는 '자화상' 속 인물이 윤두서가 맞는지, 혹시 미완성작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이미 앞에서 제시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자화상' 속 인물로 인한 인상이 찬문의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필자가 '자화상' 과 관련하여 갖는 다양한 의문과 이에 대한 해소는 금년도에 특히 주관식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내용이야! 그러나 '의문, 근거, 해소' 와 관련이 있는 요소는 몽땅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교과서나 자습서에 수록된 활동 내용에 정리가 잘 된 표가 있으니 이를 반드시 외우도록 하자!)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미술품 감상에 대한 전문가)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감상과 같은 전문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함.)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 찬문의 내용과 다른 '자화상'에 대한 의문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귀와 목, 상체가 생략됨)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효(孝)'를 중시하였으며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효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겼음.)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또는 아름다운 느낌)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기록한 책. 유교 경전의 하나임)"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

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내용 전개 방식 : 인용)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신체를 온전히 그리는 것이 당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당대 사대부들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신체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자화상'이 당대의 미감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윤두서와 당시 사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근거임.'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윤두서가 당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학습 활동에는 당파 싸움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학습 활동에 제시된 내용은 당파성에 따라 남을 헐뜯거나 싸우지 않고 초연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찬문'에서도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종합해보면 '윤두서'가 당대 사대부들과 갈등을 겪었고 이를 그림에 남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함이 있어! (금년도에 다수 출제된 글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 중,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자화상'의 회화 효과

그런 의심 ('자화상'이 미완성작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의 의문이 해소된 계기)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모습)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 (현존하는 '자화상'의 인상)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원래의 '자화상'의 인상)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 속 '자화상'

[그렇다! (영탄적 표현)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예전에 통상에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인격이나 작품 따위에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현존하는 '자화상'과 가장 다른 점)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 현존하는 '자화상'과 '자화상'의 옛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자화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느낌을 준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옛 사진 속의 '자화상'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인자한 느낌을 주지만,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자화상'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금년도에 원래의 '자화상' 과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자화상' 을 비교하는 문제가 그림의 내용, 필자의 감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출제되었어!)

▶ 조선 선비의 이상적 모습을 간직한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질

문의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내용 전개 방식 : 정의 = 유탄의 개념)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유탄의 특징)(이 구절과 관련하여 유탄의 특징을 본문에서 찾아 6어절로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어! 유탄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6어절로 딱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과 함께 '어절'의 개념도 이해해 줘야 해!) 그래서 소묘(연필, 목탄, 철필 따위로 사물의 형태와 명암을 위주로 그림을 그림.)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일상적으로)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유탄의 용도)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유탄 위에 먹으로 선을 그어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여(굳거나 뻣뻣하던 것이 무르거나 부드러워져) 있다.]([]:글쓰기가 추측한 표구 과정에서 유탄이 지워졌을 것이라는 견해의 근거)(이 구절에 대해 '필자가 작품의 훼손을 표구상의 실수로 추측하는 근거임.'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신체 부분이 잘 지워진다는 속성으로 인해 밑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유탄으로 그려져 있고, 표구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표구 과정에서 유탄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지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금년도에 가장 많은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 '글쓰기의 의문 - 의문 해소' 와 관련이 깊은 부분이야!)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추측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일정한 격식을 깨뜨리는, 또는 그런 것)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조선 사료집진속'에 포함된 사진 속 모습과 현재 전하는 '자화상'의 모습이 다른데, 이유가 상체를 유탄으로만 그리고 완성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 더 이상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익숙하지 않아 어색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원작자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끝내지 않았지만,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예술성은 완벽함.)]([]:'자화상'이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완성도'와 '예술성'의 개념이야!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눈, 코, 입, 귀, 얼굴형, 이마'와 같은 구성 요소들을 모두 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술성이 높다'는 것은 그림의 완성 여부를 떠나서 그림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따라서 '자화상'이나 '노예상'은 모두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로 보아야 하겠지?)(전년도에 비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추론해야 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금년도에 강화되었어!)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자화상'과 마찬가지로 미완성작임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다른 예술품을 제시함.)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자화상'이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이유)]([]:'노예상'과 '자화상'의 공통점을 제시하며 '자화상'의 예술성을 강조하여 표현함.)(자화상'과 '노예상'을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에서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표현 기

법이 부각되어 작품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이라는 말도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했다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두 작품이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표현 기법'이 아니라 '미완성 속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 틀린 부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항상 긴장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예술품을 소개하고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미완성 속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통해 '자화상'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금년도에 객관식, 주관식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어!)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투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자화상'을 완성하지 않은 채 그리는 작업을 마무리한 이유에 대한 필자의 추측)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 미완성의 걸작인 윤투서의 '자화상'

[지문 분석] 학습 활동

윤투서는 당쟁(당파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으로 어지러운 현실(윤투서가 살았던 당시 조정의 상황)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당파성에 초연하였으며(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였으며) 인간적인 욕망(돈, 명예와 같은 것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 하나까지 그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비로소 붓을 들었다(순수한 것을 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통해 순수한 존재에 대한 윤투서의 긍정적 인식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윤투서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음.)고 전해진다. 또 그려진 그림이 터럭 하나라도 참모습과 다르면 즉시 찢어 버렸다(순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음.)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윤투서라는 인물의 인간성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겹작)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____의____)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____의____ 개념)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재 윤두서 (1668~1715)이다. (독자의____ 유발)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자화상의____)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氣)를 발산하는 듯하다. (자화상의____)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자화상의____) ('자화상'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매서우면서도 기를 발산하는 듯 하며, 으스스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본문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글쓴이가 '____'을 보고 받은 ____이 제시된 부분이니 꼼꼼히 읽어두어야 해!)(매년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은 역시 '____'를 묻는 문제야!)

▶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武人)인가? (____을 통한 독자의____ 과____ 유발)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勇力)(씩씩한 __. 또는 뛰어난 __)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____에 관한____)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인물에 대한____의____ 및____)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冷嚴)한(____나 행동이____하고____) 성품의 장군이었던지도 모른다.]([]:인물에 대한____의 추측 및____)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인물에 대한____의 추측 및____)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원래의 의미는 '____를 내려'이지만, 문맥상 '대상의____과 관계없이 특정한____를 내리고 그러할 것으로____'를 의미함.)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想念)(마음속에 품고 있는____가지____)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____에 대한 글쓴이의____)('필자는 첫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첫인상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기억하고, 글쓴이가 첫인상을____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기억해 두자!)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 전개 방식 :____)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____에____되는 것)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상념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____에게 직접____하는 듯한 방식을 통해____을 느낄 수 있음.)(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는 '~하였다, ~이다'와 같이 마치____에 대고____을 하는 듯한 말투야! 그러면 아무래도 독자인 '나'에게 직접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필자가 혼자서 말하는 것을 독자가____에서____같은 느낌이 들지? 따라서 독자에게____한 문체로 글이 구성되면____와____가 더____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일반적인 글보다 더____을 받을 수 있어!)(금년도에 이 글에서 사용된 주된 서술상의 특징으로 '독자에게____을____ 듯한 말투'와, '____을 제시한 후____와____을 통해 의문을____함.'이 많이 출제되었어!) 아무런 선입관(어떤 대상에 대하여____마음속에____있는____인____이나 관점)이나 편견(공정하지 못하고____으로____생각)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이다. 그러므로 정

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정면상의 인)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자화상'이 정면상임에도 을 갖는)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자화상'이 정면상임에도 을 갖는)('자화상의 수염과 탕건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평면 위에 정면을 그려 놓은 '자화상'이 입체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간략히 말하면 ' , '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수염'은 으로 뻗으며 나서 을 떠오르게 하고, 부드러운 으로 이루어진 '탕건'은 전체의 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야!)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자화상'의 , 하지 않고 그런 곳은 에 가깝도록 하게 표현하였으나, 신체의 를 그리지 않고 한 것은 과)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찌면 옥에 갇혀 칼(에게 썩우던 . 두껍고 긴 의 한끝에 을 뚫어 의 을 끼우고 비녀장을 질렀음.)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윤두서가 죄인으로서 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는 의미임.)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금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자화상'에 대한 첫 인상을 제시한 앞 문단과 인 입장에서 '자화상'을 바라본 이 문단에 대해 인상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선지가 **전년도에는** 종종 출제되었어! 그러나 본문을 꼼꼼히 보면 '자화상'은 처음 봤을 때도, 다시 봤을 때도 과 을 일으킨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썩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변하거나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에게 을 듯한)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 이 윤두서라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는가에 대한 글쓴이의)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의문을 가진)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윤두서의 집안)(글에서 언급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윤두서 집안의 가계'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가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 , 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정확한 없이, 로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함.) **공재(윤두서의)**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남의 사정에 아랑곳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자화상'이 윤두서가 을 그린 것이 있음. 필자의 첫 번째 의문 : '자화상' 속 인물은 가 맞는가?)**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또는 으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들들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열일곱 줄의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필자의 두 번째 : '자화상'이 혹시 이지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물론 [즉자로 표구(表具)(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일)되지도 않았다.]([]:일반적으로 그리기를 마친 은 로 하여 보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작품이 가로의 열일곱 줄의 금으로 접힌 점과 여러 작품 뭉치 속에 섞여 있다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점 때문에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 작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러 작품 뭉치 속에 섞여 있다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점'은 글쓴이의 일 뿐, 실제로 '자화

상'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굴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매년 이처럼 글의 내용과 맞는 듯하더라도 _____을 _____인 것처럼, 또는 _____을 _____인 것처럼 설명하는 선지가 출제되고 있으니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 '자화상'에 대한 의문점

이상의 의문점들(자화상' 속 _____은 _____가 _____? '자화상'이 혹시 _____이지는 _____?)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의문점을 풀 수 있는 _____)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_____의 옆에 글제로 써넣는 _____)[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언(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_____의 단위. 한 자는 약 30.3cm에 해당함)도 되지 않는 몸]([]: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윤두서의 _____)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_____의 _____)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_____의 _____)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인물의 _____에 대한 내용)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이모저모로 살펴본 _____)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_____에 묘사된 윤두서의 _____을 통해 첫 번째 의문 '자화상 속 인물은 윤두서가 _____?'가 _____됨.)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실지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_____한 태도로 남에게 _____하거나 사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찬문의 내용과 달리 _____을 느끼게 하는 '자화상'의 인상에 대한 _____('필자가 '자화상'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필자는 '자화상' 속 인물이 윤두서가 맞는지, 혹시 미완성작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이미 앞에서 제시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자화상' 속 인물로 인한 _____이 찬문의 _____과 _____것에 대한 _____을 드러내고 있어) (필자가 '자화상' 과 관련하여 갖는 다양한 의문과 이에 대한 해소는 금년도에 특히 _____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내용이야! 그러나 '_____, _____, _____' 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몽땅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교과서나 자습서에 수록된 활동 내용에 정리가 잘 된 표가 있으니 이를 반드시 외우도록 하자!)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미술품 _____에 대한 _____)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자화상'에 대한 _____의 _____과 _____전문가의 _____를 간접적으로 _____하여 자신의 의견을 _____함.)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 찬문의 내용과 다른 '자화상'에 대한 의문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_____와 _____가 생략됨)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_____ (孝)'를 중시하였으며 자신의 _____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효를 _____하는 _____중 하나로 _____.)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또는 아름다운 느낌)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전한 _____에 관한 논설 내용을 기록한 _____경전의 하나임)"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내용 전개 방식 : _____) 그러므로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_____이 주신 소중한 _____를 _____그리는 것이 당대의 _____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당대 사대부들의 _____ 가치관으로 볼 때 _____의 일부를 _____ 하는 것은 _____ 하기 때문) ('자화상'이 당대의 미감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윤두서와 당시 사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근거임.'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윤두서가 당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학습 활동에는 _____ 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어 있어서 헛갈릴 수는 있지만, 학습 활동에 제시된 내용은 당파성에 따라 남을 헐뜯거나 싸우지 않고 _____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_____'에서도 '삼가고 물러서서 _____ 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_____ 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를 종합해보면 '윤두서'가 당대 사대부들과 갈등을 겪었고 이를 그림에 남긴 것이라고 보기에 _____ 이 있어!) (금년도에 다수 출제된 글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 중,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_____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자화상'의 회화 효과
 그런 의심 ('자화상'이 _____ 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의 의문이 _____ 된 _____)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_____ 하는 '_____'과 _____ 모습)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 (현존하는 '자화상'의 _____)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 (_____의 '자화상'의 _____)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 속 '자화상'
 [그렇다! (_____ 적 표현)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 (_____ 모자라지 아니하고 _____ 으로 _____ 도 아니한, 뽀뽀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예전에 _____ 으 로 입던 남자의 _____)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_____ 이나 작품 따위에 드러나는 고상한 _____)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현존하는 '자화상'과 가장 _____)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 현존하는 '자화상'과 '자화상'의 옛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자화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느낌을 준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_____의 '자화상'은 전체적으로 _____ 하고 _____ 한 느낌을 주지만, _____ 전해지고 있는 '_____'은 _____ 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금년도에 원래의 '자화상' 과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자화상' 을 비교하는 문제가 _____의 _____, _____의 _____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출제되었어!)

▶ 조선 선비의 이상적 모습을 간직한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유곽선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_____의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_____ 시키고 있음.) 비밀은 몸이 유탄(柳炭)(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내용 전개 방식 : _____ = _____의 개념)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유탄의 _____)(이 구절과 관련하여 유탄의 특징을 본문에서 찾아 6어절로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

어! 유탄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_____로 딱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본문의 _____과 함께 '_____의 _____도 이해해 줘야 해!) 그래서 소묘(연필, 목탄, 철필 따위로 사물의 형태와 명암을 위주로 그림을 그림.)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_____으로)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유탄의 _____)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유탄 위에 먹으로 선을 그어 _____하는 것을 의미함.)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 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 버리게 된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녹어(굳거나 _____이 무르거나 _____) 있다.]([]:글쓰기가 추측한 _____과정에서 유탄이 _____이라는 견해의 _____)(이 구절에 대해 '필자가 작품의 훼손을 표구상의 실수로 추측하는 근거임.'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어! 신체 부분이 잘 지워진다는 속성으로 인해 _____을 그릴 때 사용하는 _____으로 그려져 있고, _____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_____과정에서 _____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_____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금년도에 가장 많은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 '글쓰기의 의문 - 의문 해소' 와 관련이 깊은 부분이야!)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안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추측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일정한 _____을 _____, 또는 그런 것)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조선 사료집진속'에 포함된 사진 속 모습과 현재 전하는 '자화상'의 모습이 다른데, 이유가 _____를 _____으로만 그리고 _____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 더 이상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익숙하지 않아 _____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원작자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_____ 않았지만,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_____은 _____함.)]([]:'자화상'이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은 '_____와 '_____의 개념이야!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_____, _____, _____, _____'와 같은 _____들을 _____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술성이 높다'는 것은 그림의 _____를 떠나서 그림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_____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따라서 '자화상'이나 '노예상'은 모두 '_____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_____이 높은 작품들로 보아야 하겠지?)(전년도에 비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추론해야 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금년도에 강화되었어!)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자화상'과 마찬가지로 _____임에도 _____평가를 받는 다른 예술품을 제시함.)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자화상'이 완벽한 _____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이유)]([]:'노예상'과 '자화상'의 _____을 제시하며 '자화상'의 예술성을 _____하여 표현함.)('자화상'과 '노예상'을 비교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에서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표현 기법이 부각되어 작품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어!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이라는 말도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했다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두 작품이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_____이 아니라 '_____속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 틀린 부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항상 긴장하고 문

제를 풀어야 해!)(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예술품을 소개하고 두 작품이 _____으로 _____ 속의 _____을 보여준다는 점을 통해 '자화상'의 _____을 _____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금년도에 객관식, 주관식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어!)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투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자화상'을 _____하지 _____그리는 작업을 마무리한 _____에 대한 필자의 _____)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 미완성의 걸작인 윤투서의 '자화상'

[지문 분석] 학습 활동

윤투서는 당쟁(_____를 이루어 서로 _____일)으로 어지러운 현실(윤투서가 살았던 _____조정의 _____)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당파성에 초연하였으며(어떤 _____속에서 _____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_____하였으며) 인간적인 욕망(_____, _____와 같은 것에 대한 _____)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 하나까지 그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비로소 붓을 들었다(_____을 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통해 순수한 존재에 대한 윤투서의 _____인식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윤투서의 _____를 짐작할 수 있음.)고 전해진다. 또 그려진 그림이 터럭 하나라도 참모습과 다르면 즉시 찢어 버렸다(순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_____인식을 알 수 있음.)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윤투서라는 인물의 _____과 _____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겹작) 내신 읽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정리

갈래	비평문
성격	논리적, 분석적, 해석적, 묘사적
제재	윤두서의 그림 '자화상'
주제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윤두서 '자화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함. •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함. •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 기법을 활용함. •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줌.

2. 구성

처음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과 그에 대한 상념
중간1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
중간2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중간3	윤두서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의문과 그에 관한 추정
끝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성을 간직한 윤두서 '자화상'

3. 그림 '자화상'에 대한 글쓴이의 묘사

- 정면상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룸.
-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함.
-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무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줌.
- 귀, 목,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아,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함.
- 머리를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감.
-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음.

4. 필자가 '자화상'에 대해 받은 첫인상

- 눈매가 매서워 보는 이를 압도함.
- 수염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내면에서 기를 발산하는 듯함.
-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함.

5. '자화상' 속 인물의 입체감

얼굴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얼굴 주변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머리 전체의 무피감을 표현함.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겹작) - 내신압기 문제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정리

갈래	비□문
성격	논□적, □석적, 해□적, □사적
제재	윤두서의 그림 '□화상'
주제	미완성 속에 높은 예□적 가치를 지닌 윤두서 '자화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함. • □상을 세밀하게 묘사함. • 대상에 대한 의□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론적 기법을 활용함. •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친□감을 줌.

2. 구성

처음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과 그에 대한 상□
중간1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 가지 □문점
중간2	□존하는 '자화상'과 □른 □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
중간3	윤두서 '자화상'의 □반신 윤□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의□과 그에 관한 □정
끝	□완성 속에 높은 □술성을 간직한 윤두서 '자화상'

3. 그림 '자화상'에 대한 글쓴이의 묘사

- □면상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룸.
- 얼굴은 단순한 타□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함.
- 얼굴 전□에서 바□으로 뺨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 새까만 탕건 끝이 □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줌.
- 귀, 목,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아,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옥에 갇혀 칼을 쓴 인□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함.
- 머리를 화면의 □반부로 치켜 올라가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감.
- 시선은 □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음.

4. 필자가 '자화상'에 대해 받은 첫인상

- □매가 □서워 □는 이를 □도함.
- 수□이 활□ 타오르는 것 같아 □면에서 □를 발□하는 듯함.
- 으□스한 □낌이 들고 섬□한 □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함.

5. '자화상' 속 인물의 입체감

얼굴	얼굴 전체에서 □깎으로 □어 난 □염이 □정을 화면 위로 떠□르게 함.
얼굴 주변	탕□ □이 □드러운 □선을 이루며 □어져 □리 전체의 □피감을 표현함.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겹작) - 내신압기 문제 TEST 2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정리

갈래	□□□
성격	□□□, □□□, □□□, □□□
제재	윤두서의 그림 '□□□'
주제	미완성 속에 높은 □□□ 가치를 지닌 윤두서 '자화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함. • □□□을 세밀하게 묘사함. • 대상에 대한 □□□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 기법을 활용함. •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을 줌.

2. 구성

처음	윤두서 '자화상'의 □□□과 그에 대한 □□□
중간1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 □□□ □□□
중간2	□□□하는 '자화상'과 □□□ □□□ □□□ 속 '자화상'에 대한 □□□
중간3	윤두서 '자화상'의 □□□ □□□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과 그에 관한 □□□
끝	□□□ 속에 높은 □□□을 간직한 윤두서 '자화상'

3. 그림 '자화상'에 대한 글쓴이의 묘사

- □□□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룸.
- 얼굴은 단순한 □□□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함.
- 얼굴 □□□에서 □□□으로 뺀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 새까만 탕건 끝이 □□□□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줌.
- 귀, 목,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아,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임.
- 목에 간혀 칼을 쓴 □□□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함.
- 머리를 화면의 □□□로 치켜 올라가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감.
- 시선은 □□□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음.

4. 필자가 '자화상'에 대해 받은 첫인상

- □□□가 □□□ □□□ □□□를 □□□함.
- □□□이 □□□ 타오르는 것 같아 □□□에서 □□□를 □□□하는 듯함.
- □□□□ □□□이 들고 □□□한 □□□□에 사로잡히기까지 함.

5. '자화상' 속 인물의 입체감

얼굴	얼굴 전체에서 □□□으로 □□□ 난 □□□이 □□□을 화면 위로 □□□□ 함.
얼굴 주변	□□□ □□□이 □□□□ □□□을 이루며 □□□ □□□ 전체의 □□□을 표현함.

고1국어
신사고

5(1) 어떻게 읽을까(미완성의 겹작) - 내신압기 문제 TEST 3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정리

갈래	_____
성격	_____, _____, _____, _____
제재	윤두서의 그림 '_____'
주제	미완성 속에 높은 _____ 가치를 지닌 윤두서 '자화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_____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함. • _____을 세밀하게 묘사함. • 대상에 대한 _____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_____ 기법을 활용함. •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_____을 줌.

2. 구성

처음	윤두서 '자화상'의 _____과 그에 대한 _____
중간1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_____
중간2	_____하는 '자화상'과 _____속 '자화상'에 대한 _____
중간3	윤두서 '자화상'의 _____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_____과 그에 관한 _____
끝	_____속에 높은 _____을 간직한 윤두서 '자화상'

3. 그림 '자화상'에 대한 글쓴이의 묘사

- _____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룸.
- 얼굴은 단순한 _____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함.
- 얼굴 _____에서 _____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 새까만 탕건 끝이 _____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_____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줌.
- 귀, 목,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아,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_____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옥에 갇혀 칼을 쓴 _____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함.
- 머리를 화면의 _____로 치켜 올라가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감.
- 시선은 _____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음.

4. 필자가 '자화상'에 대해 받은 첫인상

- _____가 _____를 _____함.
- _____이 _____타오르는 것 같아 _____에서 _____를 _____하는 듯함.
- _____이 들고 _____한 _____에 사로잡히기까지 함.

5. '자화상' 속 인물의 입체감

얼굴	얼굴 전체에서 _____으로 _____난 _____이 _____을 화면 위로 _____함.
얼굴 주변	_____이 _____을 이루며 _____전체의 _____을 표현함.